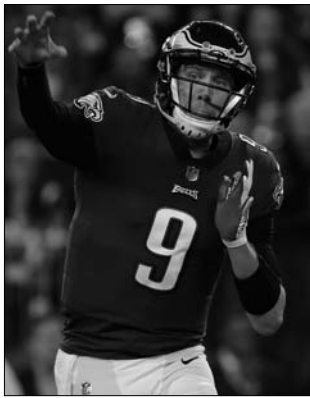


# 필라델피아, 슈퍼볼 첫 정상

### 58년 만에 우승... 쿼터백 닉 폴스 MVP



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제52회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38-3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폴스는 첫 슈퍼볼 무대에서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에서 우승하며 창단 처음으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US뱅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제52회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38-33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그 동안 슈퍼볼 우승과 인연이 없던 필라델피아는 2005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에 당한 패배를 설욕하며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슈퍼볼 이전인 NFL 챔피언십 우승만 3차례 한 이글스는 1980년 이후 무려 58년 만에 정상의 기쁨을 맛봤다.

NFL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필라델피아가 뉴잉글랜드의 창을 막아냈다.

필드골을 주고받으며 팽팽히 맞선 1쿼터 슈퍼볼 무대에 처음 선 필라델피아 쿼터백 닉 폴스가 32야드 패스로 첫 터치다운을 이끌어내며 주도권을 잡았다.

2쿼터에도 필라델피아는 두 차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며 22-12로 앞섰다.

3쿼터 통산 4번의 슈퍼볼 MVP에 빛나는 브라더의 지휘 하에 뉴잉글랜드의 공격이 살아나며 29-26으로 쫓았다.

4쿼터 제이크 엘리엇의 필드골로 32-26을 만들며 한숨 돌리려 했더니 뉴잉글랜드에게 터치다운과 추가점까지 내주며 순식간에 32-33 역전을 허용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는 정규시즌 톱시드 팀답게 저력을 발휘했다.

종료 2분21초를 남기고 폴스의 패스를 받아 잭 엘츠가 터치다운에 성공하며 38-33으로 다시 경기를 뒤집었다.

다. 이어진 수비에서 브랜던 그래엄이 브라더를 순식간에 덮치며 결정적인 색을 성공시켰다.

이날 경기에서 유일한 색이 경기 막판 승부차에서 나왔다.

공격권을 빼앗은 필라델피아는 1분 10초를 남기고 필드골을 추가, 41-33으로 달아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주전 쿼터백 카스 웨츠를 대신해 올 시즌 팀을 이끈 폴스는 첫 슈퍼볼 무대에서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폴스는 43번의 패스를 시도해 28번을 성공시켰다.

37야드, 3차례 터치다운 패스를 이끌어내며 팀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00년대 들어 슈퍼볼 5회 우승을 거머쥐며 '21세기 최강팀'으로 불린 뉴잉글랜드는 명승부를 펼쳤지만 2연패에 실패했다.

슈퍼볼 역대 최다 우승 타이 기록(6회) 역시 내년을 기약해야 했다.

/뉴시스



2월 개봉을 앞둔 영화 패딩턴 2·'골든슬럼버'·'블랙 팬서'·'홍부'

## 호러부터 사극까지... 2월 극장가 흥행 기대작 총 출동

2월 극장가에 흥행을 예고하는 기대작들이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얼 엔터테인먼트 호러부터 추격 어드벤처, 범죄 드라마, 히어로 액션, 픽션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 영화들이 총출동해 관객들에게 골라 보는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호러 무비 '베러 와이치 아웃'을 비롯해, '패딩턴 2' '골든슬럼버' '블랙 팬서' '홍부'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몰려온다.

8일 개봉하는 '베러 와이치 아웃' 뱀속까지 파고드는 서늘한 공포와 함께 눈을 뗄 수 없는 신선한 볼거리로 무장한 리얼 엔터테인먼트 호러다.

북미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를 기록한 '베러 와이치 아웃'은 공포 영화의 공식을 전복하는 새로운 캐릭터와 상상초월 반전으로 '갯 아웃' '해피 데스데이'를 잇는 2018년 새로운 호러 제너레이션 기대작으로 떠올랐다.

같은 날 개봉인 '패딩턴 2'는 런던 생활 3년 차 자칭 알바 마스터가 된 마성의 귀요미, 패딩턴이 도둑으로 몰려 감옥에 갇히는 공생 최대 위기 극복기를 담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섞인 영화다.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린 영국 국민 동화를 원작으로, 원작의 장점을 살리고 새롭게 구성된 스토리가 지 더해서 풍성한 재미를 전한다.

영문도 모른 채 암살범으로 지목되어 세상으로부터 쫓기게 된 주인공의 목숨을 건 도주를 담아내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와 범죄 액션의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같은 날 개봉하는 '블랙 팬서'는 지구에서 가장 강한 희귀 금속 비브라늄을 보유한 와칸다의 국왕이자 블랙 팬서 티찰라가 내외부 강

적들의 위협에 맞서는 2018년 마블의 첫 액션 블록버스터다.

'블랙 팬서'가 와칸다의 국왕이자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한 히어로로서 격게 될 피할 수 없는 액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환상적인 비주얼의 와칸다 왕국까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화 '홍부'는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쭉이게 만든 천재 작가 홍부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엎을 소설 '홍부전'을 집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담은 픽션 사극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 '홍부전'을 새로운 관점과 설정으로 재해석하여 홍부전의 작가와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밝힌다는 참신한 스토리로 색다른 재미를 예고한다.

故 김주혁의 유작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

##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강릉선수촌 입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5일 새벽 강릉선수촌에 입촌했다.

세라 머레이(30·캐나다) 감독이 이끄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4일 스웨덴과의 평가전을 마친 후 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왔다.

자정을 넘긴 5일 새벽 1시경 강릉에 도착한 선수단은 가슴에 '한반도기' 등에 'KOREA'(코리아)가 있는 흰색 룩패딩을 입고 통일성을 강조했다.

이날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소속된 북한 선수 12명이 입촌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 22명 전원이 입촌을 마쳤다.

단일팀은 5일 낮부터 관동 하키센터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선학국제빙상장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웨덴 대표팀과의 평가전을 마친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스웨덴 대표팀 선수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에서 훈련을 한다. B조에 속한 단일팀은 10일 스위스전을 시작으로 12일 스웨덴 14일 일본을 차례로 상대한다. /뉴시스

## 로이킴 컴백... '그때 헤어지면 돼' 12일 공개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5)이 12일 컴백한다.

5일 로이킴은 공식 SNS를 통해 "12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싱글 '그때 헤어지면 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첫 미니앨범 '개화기' 이후 9개월 만의 신곡 발표다.

이번에 공개되는 '그때 헤어지면 돼'는 로이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로, 화업을 위해 미국에서 생활 중인 그가 팬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



엠넷 '슈퍼스타K 4' 우승자인 로이킴은 2013년 4월 싱글 '별뿔뿔'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이후 'Love Love Love', 'Home', '복두칠성', '이기주의'로, '문득' 등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로 인기를 누렸다.

또 tvN '응답하라 1994'의 '서울이곳은', tvN '두 번째 스무살'의 '날 사랑하지 않는다', SBS TV '피노키오'의 '피노키오' 등 OST 히트 곡도 불렀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